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4. 7. 25.(목)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국외정보과	담당과장	김 남 희 (02-6788-4225)	
		담 당 자	사무관 이미정 (02-6788-4136) 해외자료조사관 김현주 (02-6788-4402)	

덴마크 재생에너지 전환정책 및 성공요인

-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2024-15호, 통권 제87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 25일(목) 「덴마크 재생에너지 전환정책 및 성공요인」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 (2024-15호, 통권 제87호)을 발간했다.

탄소중립 선도국 덴마크는 1973년 오일쇼크를 겪으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을 느끼고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합심하여 풍력발전으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로 현재 전력의 67%를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 공급하고 있다.

덴마크가 풍력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성공하게 된 요인으로는 ‘원스톱 숏(One-stop Shop)’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해상풍력사업의 인허가 창구를 에너지청(Danish Energy Agency)으로 단일화하여 해상풍력발전 입지 계획부터 사업자 선정, 인허가 과정 등 복잡다기한 절차와 규제를 다른 정부부처에 갈 필요 없이 에너지청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력이 필요한 주민들이 직접 ‘풍력발전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주체적으로 풍력발전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풍력에너지 프로젝트 진행 시 소유체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식을 채택했다.

덴마크가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당 및 에너지 업계 간의 합의를 통해 중요 에너지 정책 사항을 ‘협정(Energy Agreement)’의 형태로 결정해 나가며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수립되면 최소 5~10년 정도는 그 합의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협정에 포함되어 있고, 정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다시 의결해야 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덴마크와 같이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도 해상풍력 자원은 풍부하지만 해상풍력 조성사업이 부진한 상태이며 사회적 수용성 부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고, “덴마크의 정치적 화합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사례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수립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현안, 외국에선?』은 국회도서관의 지역전문가인 해외자료조사관으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회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가의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사례를 조사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보고서로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2024. 7. 25.

국회도서관 | 2024-15호(통권 제87호)

덴마크 재생에너지 전환정책 및 성공요인

현안

외국에선?

김 현 주

탄소중립 선도국인 덴마크는 1973년 오일쇼크를 겪으며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합심하여 풍력발전으로의 전환정책을 추진함. 특히 '원스톱 숍(One-stop shop)' 제도를 도입하여 해상풍력사업의 인허가 창구를 단일화하였으며, 전력이 필요한 주민들이 직접 '풍력발전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풍력단지 개발 단계부터 참여하고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는 수익을 기업과 주민이 공유하는 방식을 채택함.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에너지 전환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덴마크의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사례를 통하여 해상풍력발전과정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 요인을 파악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한 갈등관리정책을 살펴보고자 함.

I. 시작하며

- 1960~1970년대 화석연료 99%를 수입에 의존하여 '에너지 빈곤국'으로 불리던 덴마크는 현재 전력 67%를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 공급하게 됨¹⁾으로써 에너지 전환 선도국이 됨.
 - 덴마크 에너지 전환의 시초는 1973년 오일쇼크였음. 당시 에너지 공급 안정을 위해 화석연료 비중을 낮춰야 할 필요가 커지면서 에너지 다각화를 모색하기 시작함.²⁾
- 재생에너지 전환에 성공하게 된 요소 중 하나인 원스톱 숍 제도는 에너지청(Danish Energy Agency, 이하 DEA)에서 해상풍력발전 입지 계획부터 사업자 선정, 인허가 과정 등 복잡다기한 절차와 규제를 해결하여 다른 정부부처에 갈 필요 없이 에너지청과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임.
 - 사업자 입장에서는 풍력발전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개발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음.

1) Statista > Distribution of electricity generation in Denmark in 2023(Eurostat). 2024.7.22. 인용: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235360/denmark-distribution-of-electricity-production-by-source/>

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 Denmark is a laboratory for green solutions. 2024.7.22. 인용: <https://denmark.dk/innovation-and-design/green-solutions>

발행인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작성者 김현주 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 해외자료조사관(영어 담당) / ☎ 02-6788-4402



※ 『현안, 외국에선?』 원문은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URL: <https://dl.nanet.go.kr/SearchDetailView.do?cn=SERL1202000062>